SK㈜ C&C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센터 클라우드 개발검증센터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정보화 신산업 분야인 클라우드 기술 적용 이유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을 받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빠르고 안전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 '길잡이'

SK㈜ C&C 대구 클라우드센터 구축 우선협상자로 선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통합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완공 예정인 대구센터를 정부 최초의 완전한 클라우드 센터로 구축하고, 센터 입주 예정인 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교통안전공단 등 79개의 행정·공공기관 시스템의 빠른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SK㈜ C&C는 먼저 대구 클라우드 센터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SDDC) 도입 전략 및 시스템 설계는 물론 개발검증센터 구축까지 진행한다.

SDDC란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물론 각종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를 가상화 기반으로 제공해 클라우드와 연동된 IT 통합 관리 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게 해 준다.

자체 클라우드와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사이에서 데이터와 인프라 자원도 쉽게 이동시킬 수 있어서 외부의 우수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시스템 적용도 유리하다.

SK㈜ C&C는 또 대구 센터 입주 예정인 79개 행정·공공기관들이 기존 공공업무 및 서비스 관련 시스템·인프라 자원의 빠르고 안전한 클라우드 전환 및 이전을 위한 클라우드 개발검증센터도 제공한다.

SDDC의 특성을 살려 공공 데이터 수요량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각 기관이 시스템별로 현재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를 확보하며 수요에 따라 늘려가는 '스타트 스몰'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디지털 신기술 및 SW 도입 검증 체계도 마련해 대구 센터 이전과 함께 펼칠 기관들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 개발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프라 및 네트워크 자원 효율성 증대로 운용 비용 절감은 물론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인프라 자동 통합 점검이 이뤄져 센터 서비스 안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삼성重, 2118억 LNGC 수주

최근 매출액의 2.7% 규모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연합뉴스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의 선주로부터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 1척을 수주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2118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2.7%에 해당한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총 41척, 49억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려 연간 목표치(82억달러)의 약 60%를 달성했다. 선종별로 보면 LNG선 11척, 컨테이너선 13척, 유조선 14척, 특수선 3척을 수주했다.

한편 계약 기간은 2021년 1월 31일까지다.

/정연우 기자 ywj964@

메탈 브라운 '삼성 큐브'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

신규색상 추가… 소비자 선택 폭 넓혀

삼성전자가 메탈 실버·화이트 색상의 '삼성 큐브' 라인업에 신규 색상인 메탈 브라운(Metal Brown)을 추가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메탈 실버·화이트 색상의 '삼성 큐브' 라인업에 신규 색상인 메탈 브라운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출시된 '삼성 큐브'는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국내 매출 확대에 기여했고 백화점 경로의 공기청정기 매출의 60%를 차지했다. 업계 최초로 메탈을 적용해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한 메탈 실버 색상은 국내 소비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삼성 큐브' 메탈 브라운 색상은 나무 재질처럼 자연스러운 톤과 유광 무광 사이의 은은한 광택감을 적용했다. 메탈 특유의 차가움은 덜어내고 아늑하고 따뜻한 감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메탈 브라운 색상 '삼성 큐브'는 15일부터 청정 면적 47·94㎡ 2개 모델로 출시된다. 출고가 기준 가격은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르노삼성, 중형 상용차 '르노 마스터' 출시

마스터 S·L 2가지 버전 선봬
판매가격 2900만~3100만원

르노삼성자동차가 15일 상용차 '마스터'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가 15일 르노그룹의 상용차 마스터를 정식 출시하고 고객인도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르노마스터는 마스터 S(Standard)와 마스터 L(Large)의 2가지 버전으로 국내에 출시했다. 판매가격은 각각 2900만원, 3100만원이다. 2.3ℓ 트윈터보 디젤 엔진을 적용해 최고출력 145마력(ps), 최대 토크 36.7㎏·m의 힘을 발휘한다. 복합연비는 10.5~10.8㎞/ℓ다.

이 차량은 전륜 구동 방식에 도로 조건에 맞춰 구동력을 제어하는 '익스텐디드 그립 컨트롤' 기능이 함께 제공되며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트레일러 흔들림 조절기능 등이 기본으로 적용됐다.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과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트레일러 흔들림 조절기능까지 기본 제공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세미보닛 타입 구조의 마스터는 충분한 충격흡수 존을 갖추고 있어 전방 충돌 사고 시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해 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르노 마스터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현재의 3세대 모델까지 38년 동안 발전해 온 품질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국내 상용차 고객들에게 차량 품질과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스터의 보증수리 내용에 엔진과 동력부품은 물론이고 차체 및 일반 부품까지 모두 3년, 10만㎞를 보증한다.

/정연우 기자

아시아나항공

뉴욕여행사 스터디투어

아시아나항공이 15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18년 뉴욕여행사 스터디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뉴욕지점과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스터디투어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21일까지 대한민국 곳곳의 특색있고 매력있는 볼거리, 먹거리들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현대로템, 제철과 1513억 설비공급 계약

지난해 매출의 5.6% 해당 규모
하반기 집중 수주로 반등 기대

현대로템이 올 하반기 집중 수주를 통해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올 상반기 수주 절벽 여파로 철도 부문의 매출감소와 K2 전차 양산의 지연으로 방산 부문의 수익성이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잇따라 수주소식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실적에 발목을 잡은 플랜트 부문에서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현대로템은 계열회사인 현대제철과 1513억6000만원 규모의 현대제철 당진 3소결공장 배가스 청정설비 신규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현대로템 지난해 매출액 대비 5.6%에 해당한다. 계약일은 2020년 10월 15일까지다.

한편 현대로템의 사업부는 철도, 방산, 플랜트 등 세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현대로템의 철도 부문은 올해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로템은 올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전체 수주(3조8350억원), 철도분야 수주(2조5770억원)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로템은 올 상반기 1조1270억원(철도 1조240억원)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필립스 'S9000 프레스티지' 세계 최초 한국서 출시

72개 면도날로 15만번 컷팅(분당)
반복면도에도 피부손상 없어

자사 혁신 기술 집대성

S9000 프레스티지. /필립스코리아

필립스가 자사의 혁신 기술을 집대성한 전기면도기 신제품 플래그십 모델 'S9000 프레스티지'를 15일 한국에서 최초로 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필립스 글로벌 남성 그루밍 사업부문 총괄 존 스미스 부사장은 "한국에서 팔리는 전기면도기 3개중 2개 이상이 필립스 제품"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신제품에 대한 성능을 소개했다.

S9000 프레스티지는 밀착면도와 함께 피부보호를 통해 최상의 면도를 선사한다. S9000 프레스티지의 핵심 기술인 '나노스틸 정밀 블레이드'는 필립스의 80년 면도날 기술에 스웨덴 철강 기술을 더해 초근접 밀착 면도에 최적화되어 있다.

특수 나노 코팅된 72개의 면도날은 분당 15만번의 오차 없는 컷팅을 통해 기존 9000 시리즈 대비 3배 더 날카롭고 정밀한 절삭력을 자랑한다. 여기에 최고의 모터 성능 및 지능을 담은 '인텔리전트 쉐이빙 센서'가 분당 900번 수염 밀도를 파악해 모터 파워를 조절, 완벽한 맞춤 면도를 제공한다.

또한, '초근접 컴포트 쉐이빙 시스템'이 탑재돼 면도 효율을 한층 높였다. 특히, 일반 성인 머리카락의 1/2 굵기 수준의 54㎛(마이크로미터) 초극막 면도망이 빈틈없는 피부 밀착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존 9000 시리즈 대비 면도망 트랙 넓이가 50% 확대돼 1.5배 더 많은 수염을 한 번에 정리하며 반복 면도에 의한 피부 손상까지 방지한다.

'수퍼 스킨 컴포트 링'도 S9000 프레스티지의 격을 한층 높였다. 금속성 안료가 한 겹 더 얇게 특수 코팅된 수퍼 스킨 컴포트링이 피부 마찰을 감소시켜 필립스 역대 최고의 피부 편안함을 제공한다.

출고가격은 65만원이다.

/구서윤기자